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현 경 실** · 홍 혜 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예술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예술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 개혁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각 나라에서 2개교씩 선정하여 총 10개교의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에서 한국은 예술인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교육 환경을,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전인적 발달을, 영국에서는 최고의 교육 제공, 평등한 교육, 잠재력 발현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영국에서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 음악 공학, 그리고 호주에서는 전자 음악의 전공 또한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모든 외국의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실기교사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추가 실시하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음악성 관련 시험과 입학시험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실기 곡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다르게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2곡 이상의 대조적인 스타일의 자유곡을 요구하고 있었다. 넷째, 음악과 개설 전공 교과목을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며, 세분화된 이론 과목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었다.

※ 주제어: 예술고등학교, 교육목표, 교육과정, 국제 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 외국의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

차 례

- I. 서 론
- II. 한국과 세계 여러나라의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
비교·분석
 - 1. 교육목표
 - 2. 음악과 개설 전공
 - 3. 입학 절차 및 입학 요건
 - 4. 음악과 개설 교과목
 - 5. 시사점 및 제언
- III. 결 론

*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kyungsil@sungshin.ac.kr)/ 교신저자

*** 중화중학교 강사(honghyeyeon@naver.com)/ 제 1저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유네스코는 창의·인성 계발을 강조하는 예술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서울선언”을 발표하였으며(조성기, 2012, pp. 41-60),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6개의 중점추진과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2010).

첫째,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둘째,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셋째, 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넷째,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다섯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여섯째, 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초·중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음악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분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일반 중·고등학교의 예술교육은 물론 예술계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발행한 “예술영재교육과정 연구”(2006)에 따르면 제 9차 교육과정부터 음악 전문 교과로 시창청음, 음악 이론, 음악사 등의 과목뿐만 아니라 음악과 매체, 교양 실기 등의 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문 과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국내 예술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과목이외에 새로운 과목들을 신설하지 않고 있다. 예술교육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내 예술고등학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외국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국 교육과정의

장점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효율적으로 적용, 수용하며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의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과거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술고등학교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방안 탐색”(조성기, 2013)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국한되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있었으며, 예술고등학교의 교과목의 특징만을 서술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의 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비교 연구”(박혜진, 2004)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과정만을 다루고 있으며 예술고등학교의 교과목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최은식, 신지혜, 2014)는 다른 선행연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나라와 연구문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입학 절차, 입학요건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다양한 나라의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다각적인 시각에서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근거하여 교육목표, 음악과의 개설 전공, 음악과 입학 절차 및 요건, 음악과 전공과목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분석하여 국내 예술 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각 국가마다 2개의 예술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기에 각 국가 전체의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원문 자료만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번역자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셋째, 한국으로 보면 고등학교의 단계, 즉 대학 진학 전단계의 학교 혹은 학교급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 국가마다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개)년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넷째, 한국의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서울예술고등학교와 부산예술고등학교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사점과 제언점은 한국의 모든 예술고등학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각 국의 예술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헌을 기초로 하여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개국, 즉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예술고등학교 2개교씩, 총 10개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이다. 나라의 선정은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학교의 선정은 각 나라에 대표적인 예술고등학교 중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상 예술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문서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일차적으로 교육 목표, 음악과 개설전공, 입학 요건, 전공 교과목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고 본문을 번역하였다. 자료가 부족한 것은 개인적으로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정보요청을 하였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에 맞춰 한국과 비교하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다양한 관점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10개교의 학교 이름과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

국가	학교	웹사이트
한국	서울예술고등학교	http://www.yego.or.kr/
	부산예술고등학교	http://pusanarts.hs.kr/
미국	아이딜와일드 예술학교 (Idyllwild Arts Academy)	http://www.idyllwildarts.org/
	월넛힐 예술학교 (Walnut Hill School for the Arts)	http://walnuthillarts.org/
캐나다	캔터버리 고등학교 (Canterbury High School)	http://canterburyhs.ocdsb.ca/
	랭리종합예술학교 (Langley Fine Arts School)	http://langleyfinearts.com/
영국	퍼셀음악예술학교(The Purcell School)	http://www.purcell-school.org/
	체텀음악학교(Chetham's School of Music)	http://www.chethams.com/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공연예술학교 (Australian Performing Arts Grammar School)	http://apgs.nsw.edu.au/web/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 (Victorian College of the arts Secondary School)	http://www.vcass.vic.edu.au/

II.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 비교·분석

1. 교육목표

본 연구에서는 예술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교육목표를 비교·분석하였다. 각 국가마다 Purpose, Mission Statement, Vision 등 다양한 용어로 학교의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연구대상 학교의 교육목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한국과 세계 예술고등학교의 교육목표

국가	학교	교육목표
한국	서울예술고등학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예술의 전문적인 교육을 조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애국 애족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참된 예술인을 육성 한다.
	부산예술고등학교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 신장시켜 미래를 창조하는 참된 예술인을 육성 한다.
미국	아이덜와일드 예술학교	긍정적인 개인 성장에 좋은 아름답고 자연적인 환경에서의 교육을 통해 예술과 문화적인 성장을 발전, 증진 시킨다.
	월넛힐 예술학교	다양하고, 인도적이며, 도덕적인 지역 사회 안에서 재능과 기량이 뛰어나며, 지적인 세계의 젊은 예술인으로 교육 한다.
캐나다	캔터버리 고등학교	학문과 예술의 우수한 성과를 촉진함으로써 최고의 기준을 유지 하고, 각 학생의 확고한 정체성과 인간적 진실성 을 고무하는 환경을 유지한다.
	랭리종합 예술학교	예술을 공통 관심 으로 두며,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써, 고무적이며, 풍부한 문화적 상호소통의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그램을 통한 심미적 지능을 발전 시키는 것에 집중함과 동시에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영국	퍼셀음악 예술학교	특출한 재능과 가능성을 지닌 젊은 예술인에게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현 하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교수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채텀음악 학교	- 그들의 사회, 인종,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음악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여 드러내도록 교육한다. - 특성화된 학교로써 가능한 넓은 학문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전인적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더 나아가 학생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한다.

국가	학교	교육목표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공연 예술학교	젊은 인재들의 창조적 예술 능력 과 학문적 능력 을 통합한다. 독립심, 자존감 , 폭넓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을 발전시키기 위한 풍요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빅토리안 예술 고등학교	젊은 예술가 들의 교육을 위한 전국적,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배움의 열정 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또한 자신에 대한 존경심 을 발전시킨다.

각 학교의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강조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 이를 예술인 육성, 학문적 육성, 학생 잠재력 개발, 학생자신의 자존감, 정체성, 독립심 등 학생 인성중심교육,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류애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표 3> 국가별 교육목표의 공통적 특성

	예술인 육성	학문적 육성	잠재력 개발	학생자신의 인성 (자존감/정체성/독립심)	인류애 (도덕적/사회적 공동체)
한국	✓		✓		✓
미국	✓	✓			✓
캐나다	✓	✓	✓	✓	
영국	✓	✓	✓	✓	✓
호주	✓	✓		✓	

한국만을 제외하면 예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학문적 육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예술학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 자신의 정체성, 독립심, 자존감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국의 예술학교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개발과 인류애를 강조하고 있었고, 미국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예술과 학문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예술인 육성이외에 지역 사회 혹은 환경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예술인 육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단순히 예술적 발달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다른 국가와 달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적 환경을 보존,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영국과 호주 모두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 ‘아이

들을 육성한다.’는 것이 ‘교육을 전수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교육을 제공해준다’고 하여 ‘학생 스스로가 배움을 얻는다.’는 느낌의 어감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크게 인정하여 이를 발휘해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그리고 영국은 유일하게 학생들이 자신의 어떠한 배경과 무관하게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음악과 개설 전공

대부분의 학교에서 음악과 개설 전공 분야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지만, 캐나다의 랭리종합예술학교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안 공연예술학교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2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8학교에 대한 음악과 개설 전공을 정리하였다. 현악기는 하프와 클래식 기타, 기타를 포함한다. 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각 학교별 음악과 전공 개설 유무

국가	학교	분야별 전공 개설 유무										
		건반악기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성악	작곡	국악	재즈	음악공학	총(개)
한국	서울예술고등학교	✓	✓	✓	✓	✓	✓	✓				7
	부산예술고등학교	✓	✓	✓	✓	✓	✓	✓	✓			8
미국	아이딜와일드 예술학교	✓	✓	✓	✓	✓	✓	✓		✓		8
	월넛힐 예술학교	✓	✓	✓	✓	✓	✓	✓		✓		8
캐나다	캔터버리 고등학교		✓	✓	✓	✓	✓					5
영국	채텀음악학교	✓	✓	✓	✓	✓	✓	✓		✓	✓	9
	퍼셀음악예술학교	✓	✓	✓	✓	✓	✓	✓		✓	✓	9
호주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	✓	✓	✓	✓	✓	✓				✓	7

한국의 서울예술고등학교와 부산예술고등학교를 바탕으로 한국의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건반악기와 오케스트라 악기, 성악, 작곡 등을 위주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한국과 비슷한 전공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는 재즈 전공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총 5개의 전공 분야를 개설하여 8개의 학교 중 가장 적은 전공 분야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건반악기를 전공으로 개설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작곡을 제공하는 데 비해 이를 개설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었다. 영국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9개의 전공 분야를 개설함으로써, 가장 많은 전공 분야를 개설하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유일하게 음악 공학을 전공으로 개설해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호주의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전자 악기를 전공에 포함하고 있다.

3. 입학 절차 및 입학 요건

1) 입학 절차

각 국의 예술고등학교의 전형 절차(입학 절차)와 음악과 전공별 실기 과제(입학 요건)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전형 절차에 대해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외국의 전형 절차에서 한국의 전형 절차와 다른 부분에서는 글자체를 달리 하였다.

<표 5> 한국과 세계 예술고등학교의 음악과 입학 전형 절차

국가	학교	전형 절차
한국	서울예술고등학교	인터넷/방문 원서 접수 → 예비 소집 → 실기고사 → 합격자 발표
	부산예술고등학교	우편/방문 원서 접수 → 예비 소집 → 실기고사 → 합격자 발표
미국	아이덜와일드 예술학교	지원서 제출 → 실기 고사 → 인터뷰 → 합격자 발표
	월넛힐 예술학교	투어와 인터뷰(선택) → 인터넷 지원서 작성/제출 → 실기 고사(스케일, 조건 능력, 음악 이론 포함) → 합격자 발표
캐나다	캔터버리 고등학교	지원서 제출 →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른 서류 제출(방문) → 그룹 정보/오디션 워크샵 참석 → 실기 고사 → 인터뷰 → 음악 이론 시험 → 합격자 발표
	랭리종합 예술학교	지원서 제출 → 인터뷰 → 실기고사 → 합격자 발표
영국	퍼셀음악 예술학교	지원서 제출 → 예비 오디션 → 메인 오디션 → 초견과 청음 테스트 → 인터뷰 → 음악 이론 시험 → 사고력 시험(Reasoning test) → 합격자 발표
	채텀음악 학교	지원서 제출 → 평가 오디션 → 메인 오디션 → 학교 투어 → 합격자 발표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공연예술학교	온라인 지원서 제출 → 실기 고사 → 인터뷰 → 입학시험 → 합격자 발표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	지원서 제출 → 음악성 테스트(조건, 청음 포함) → 오디션 → 합격자 발표

전형 절차는 모든 학교에서 크게 3가지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실기 고사 혹은 오디션을 보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절차이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세부적인 전형 절차는 학교별로 상이하여 나라별 공통적 특성을 찾기는 힘들었다.

한국에서는 모두 원서 접수, 예비 소집,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의 절차를 따르고 있었고, 미국도 한국과 같은 절차를 취하지만, 아이덜와일드 예술학교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추가로 보고 있었다. 캐나다의 캔터버리 고등학교에서는 지원서 이외에 방문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한국과 달리 인터뷰, 그리고 음악이론 시험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캐나다의 랭리종합예술학교에서는 지원서 제출 후에 인터뷰를 먼저 보는 특징이 있다. 영국의 퍼셀음악예술학교와 채텀음악학교는 지원서 제출 후에 실기고사를 2번에 걸쳐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퍼셀음악예술학교는 2번에 오디션 외에도 초견과 청음 테스트, 인터뷰, 음악 이론 시험, 사고력 시험 등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하여 10개의 학교 중 가장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채텀음악학교는 2번의 실기 고사 후에 학교 투어를 해준다는 것이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이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공연예술학교에서는 인터뷰와 입학시험이 있으며,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추가의 음악성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었다.

2) 입학 요건

다음은 입학을 위한 음악과 전공별 실기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기과제란 학생의 전공으로 시험 봐야 하는 곡을 지칭한다. 입학시험, 초견, 청음, 이론, 역사 시험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랭리종합예술학교의 경우, 현지학생에 대한 입학요건 찾을 수 없어 국제학생에 대한 입학 요건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랭리종합예술학교는 각 학년별로 다른 실기과제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학년 전체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기에 이를 공통된 실기과제로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먼저 각 나라별 학교의 기악과(성악, 작곡 제외) 실기과제를 분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가.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곡 위주로 실기고사를 치른다.

나. 한국의 경우, 건반, 현, 그리고 플루트는 지정곡으로 실기고사를 치르고 나머지 악기들은 자유곡으로 심사한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모든 기악악기를 자

유곡으로 심사한다. 한국은 자유곡으로 심사할 경우, 다른 제약 없이 1곡을 선정 하면 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2곡 이상의 곡을 요구한다. 2곡은 장르, 스타일, 시대에 있어서 대조적인 스타일을 나타내야 한다.

한국과 다른 나라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는 건반악기와 성악의 실기과제는 세 부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먼저 각 나라별 예술고등학교의 건반악기 실기과제를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의 캔터버리 고등학교에서는 건반악기 전공을 개설하지 않았기에 제외시켰다.

<표 6> 음악과 입학 실기 과제 - 건반악기

국가	학교	음악과 입학 실기 과제 - 건반악기					총 (개)
		스케일	아르페지오	연습곡		새로운 곡 ¹⁾	
한국	서울예술고등학교	✓	✓	✓✓	✓		5
	부산예술고등학교			✓	✓		2
미국	아이덜와일드 예술학교				✓✓✓		3
	월넛힐 예술학교	✓			✓✓✓✓		5
캐나다	랭리종합예술학교				✓✓		2
영국	퍼셀음악예술학교				✓✓		2
	채텀음악학교				✓✓		2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공연예술학교				✓✓		2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			✓✓✓✓	✓✓	✓	7

* ✓의 수는 준비해야 하는 곡의 수를 지칭한다.

한국의 서울예고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음계(Scale)과 아르페지오(Arpeggio)를 실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었다. 연습곡을 보는 학교는 한국의 2개의 예술고등학교와 호주의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뿐이었다. 표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연습곡도 지정해주는 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지정해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준비해야 하는 실기과제의 수는 1개부터 7개까지 다양했는데, 미국의

1) 새로운 곡은 원서 전형에서 통과한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곡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어 준비하는 곡과 함께 실기고사를 보는 것이다.

예술고등학교에서는 3-5개, 캐나다는 1-2개, 영국은 2개 정도 실기과제를 내주는 반면, 한국과 호주는 학교별로 그 차이가 커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성악과 전공 실기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표 7> 음악과 입학 실기 과제 - 성악

국가	학교	음악과 입학 실기 과제 - 성악			
		실기곡 수	연습 곡	곡의 언어	총 (개)
한국	서울예술고등학교	2		이태리	2
	부산예술고등학교	2		이태리	2
미국	아이덜와일드 예술학교	2		무관	2
	월넛힐 예술학교	2-3		영어원작과 이태리 혹은 무관	2-3
캐나다	캔터버리 고등학교	1		이태리, 독일어, 프랑스어 중 택 1	1
	랭리종합예술학교	2		무관	2
영국	퍼셀음악예술학교	2		무관	2
	채텀음악학교	2		무관	2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공연예술학교	2		무관	2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	2	3-4	이태리와 무관	5-6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실기 곡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지만 호주의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실기곡 2개와 3-4개의 테크닉 연습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유곡으로 실기고사를 치르지만 호주의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와 캐나다의 캔터버리 고등학교의 경우, 곡을 지정해주는 특징을 보였다.

각 학교마다 실기곡의 원어가 상이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태리 곡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외국의 경우, 대체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음악과 개설 전공 교과목

1) 음악과 전공 필수 교과목

각 학교의 세부적인 음악과 전공 필수 교과목을 실기, 이론,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안 공연예술학교의 경우, 개설 교과목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 문제에서는 제외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필

수과목과 선택과목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택으로 듣는 전공과목임이 확실한 것만 선택 전공의 범주로 넣었으며, 다른 전공 교과목은 필수 교과목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나라별 음악과 전공 필수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각 나라별 음악과 전공 필수 교과목

국가	학교	음악과 전공 필수 교과목		
		실기	이론	기타
한국	서울예술고등학교	전공 실기, 공연실습, 합창합주	시창청음, 음악이론, 음악사	
	부산예술고등학교	전공실기, 실기연주, 합창합주	시창청음, 음악이론, 음악사 및 감상	
미국	월넛힐 예술학교	전공실기, 실내악, 오케스트라, 합창, 공연마스터클래스(연주), 피아노 레슨, Youth Chorale (NEC), 보컬 코칭, 발음, 연기와 움직임, 보컬 마스터 클래스	음악의 기초, 음악 이론, 음악 분석, 음악사, 시창청음, 솔 페지오	피아노, 세미나, 작곡 세미나
	아이딜 와일드 예술학교	전공실기(개인레슨), 오케스트라, 실내악, 클래스 피아노, 향상 연주 (Performance Class-Piano, Vocal), 반주/건반 스킬, 즉흥 연기, 발음, 재즈 콤보, 재즈 앙상블	컴퓨터 음악 응용, 음악사, 음악이론, 피아노 문학, 노래 문학, 오페라 문학, 재즈 이론	공연포럼, 시니어 세미나
캐나다	캔터버리 고등학교	전공실기, 음악 레파토리, 작은 앙상블 (실내악), 음악 연주, 테크닉 스킬, 콘서트밴드, 현악 앙상블, 성악 앙상블	음악 이론, 청음, 피아노, 음악창조(작곡), 음악사와 감상	
	랭리종합 예술학교	전공실기, 합창, 실내악 합창, 보컬 앙상블, 콘서트 밴드, 오케스트라, 실내악, 재즈 앙상블, 재즈 콤보	작곡, 음악 감상 및 분석	
영국	퍼셀음악 예술학교	전공실기(개인레슨), 부전공실기, 알렌산더 테크닉, 오케스트라, 합창, 실내악	화성과 선율의 이해, 작곡과 음악사, 청음, 작곡 기술, 음악 이론, 음악 화성, 음악 분석	세미나
	채텀음악 학교	전공실기, 부전공실기, 합창 및 기본 음악성, 실내악, 청음	학문 과목으로써의 음악, 음악 감상, 역사 그리고 분석, 작곡, 합창곡 분석 (Choir work)	
호주	빅토리안 예술고등학교	전공실기, 작은 앙상블, 큰 앙상블, 합창, 실내악, 음악 연주	음악 문학, 청음, 솔 페지오, 작곡, 음악 공학, 음악 분석, 음악 스타일과 작곡	공연 세미나, VET 음악 자격증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전공실기와 합주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성악 전공 외 다른 전공생들을 위한 합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이론 과목은 세분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단편적인 교과목을 운영하여 다양한 경험의 수업을 보장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에 비해 미국은 전공별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교과목을 들을 수 있어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학년별로 단계적인 교과목을 제시하며, 다양한 앙상블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영국은 부전공을 필수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알렉산더 테크닉과 같은 새로운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세미나를 제공하며, 음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도 제공하는 특징을 보였다.

2) 음악과 전공 선택 교과목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과목 이외에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교과를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9> 각 나라별 음악과 전공 선택 교과목

국가	학교	음악과 전공 선택 교과목		
		실기	이론	기타
미국	아이덜 와일드 예술학교	피아노 합주, 영화 음악 제작, 대중음악의 작사, 작곡, 성악과 연주기술의 작사, 작곡	재즈 역사, 클래식 음악의 역사와 미래	대중 음악 세미나, 작사 작곡 세미나
캐나다	켄터버리 고등학교	실내악 합창, 재즈 앙상블, 남성 합창단		
영국	퍼셀음악 예술학교	실내악 합창, 빅밴드/재즈밴드, 재즈 앙상블, 현대 앙상블, 전자 음악		

한국과 다르게 다른 국가의 학교들은 교과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 교과목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재즈와 대중음악, 영화 음악까지 다방면으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필수 교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앙상블 이외에 또 다른 합창과 재즈 앙상블을 제공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재즈 앙상블, 현대 음악

양상블, 전자 음악 등 장르에 제한 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5. 논의

지금까지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근거하여 교육목표, 음악과의 개설 전공, 음악과 입학 절차 및 요건, 음악과 전공과목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각 나라의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각 나라별 교육목표, 개설 전공, 입학 절차 및 요건, 전공과목의 특징

교육 목표	-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예술인육성을 강조 -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학문적 육성을 강조 -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는 특히 학생의 자존감, 정체성, 독립심 등을 강조함 - 캐나다는 전인적 발달, 교육적 환경 보존을 강조함
개설 전공	- 한국은 건반악기, 오케스트라 악기, 성악, 작곡을 위주로 전공을 개설 - 미국은 재즈 전공, 영국은 음악공학, 호주는 전자악기를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음
입학 절차 및 요건	- 모든 학교에서 크게 원서 접수, 오디션의 입학 시험 절차를 가지고 있음 -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모든 기악악기는 자유곡으로 심사한다. - 자유곡의 경우, 한국은 1곡, 다른 나라에서는 대조적인 스타일의 2곡 이상의 곡을 요구함 -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이론, 초견, 청음등의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음악과 개설 전공 교과목	- 모든 나라에서 전공실기와 합주(양상블, 오케스트라, 실내악 등)을 제공 -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합창을 제공 -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이론 과목은 세분화 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학생 전공에 따라 다른 교과목을 제공, 클래스 피아노, 컴퓨터 음악 응용, 다양한 세미나를 제공 -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양상블을 제공하며, 학년별로 나누어 교과목을 제공 - 영국의 경우, 알렉산더 테크닉과 같은 새로운 과목을 제공하며, 부전공실기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 - 호주의 경우, 세미나를 제공하며, VET 음악 자격증에 관련된 수업을 제공

II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근거하여 교육목표, 음악과의 개설 전공, 음악과 입학 절차 및 요건, 음악과 전공 과목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분석하여 국내 예술 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예술고등학교에서 학문적 육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예술적 능력 개발과 인류애를 강조하는 반면,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예술고등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 자신의 정체성, 독립심, 자존감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강조하며, 예술인 육성이외에도 지역 사회 혹은 환경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의 예술고등학교는 한국과 다르게 전인적 발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교육적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호주에서는 최고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예술고등학교의 ‘예술적 능력개발’을 강조하는 교육목표보다는 ‘공동체, 독립심, 자존감, 전인적 발달.’ 등을 포함하는 교육목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강압적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교육환경을 통해 스스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친근한 교육 환경을 통한 학생 스스로의 배움,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교육목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설 전공을 분석한 결과, 보편적으로 클래식, 오케스트라 악기의 전공을 강조하였지만, 미국과 영국의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재즈, 음악 공학, 그리고 호주의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전자 음악의 전공 또한 강조하고 있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오케스트라, 클래식 외에 재즈, 실용음악(전자음악)의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재즈, 음악 공학, 전자 음악 등의 전공을 개설하여 다양한 장르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용음악 전공을 개설한 몇몇의 예술고등학교 이외에도 대부분의 예술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학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 실기고사라는 2단계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인터뷰를 시행하며, 특히 영국과 호주 음악 시험 혹은 입학시험, 2번의 실기고사를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기 곡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정곡이나 1곡의 자유곡으로 심사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 예술고등학교에서는 2곡 이상의 대조적인 스타일의 자유곡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외국 예술고등학교에서는 모든 전공에서 학생의 곡 선택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입학 절차에 인터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학생의 현재 실력으로만 평가되는 실기 곡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보다는 학생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적 이해도가 높으며, 열정적으로 학교 수업에 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또, 실기고사에서 학생들이 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지정곡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짧은 시간의 한 곡을 통해서 학생의 기량을 전부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기고사의 학생들의 곡 선택권을 확대하여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음악과 개설 전공 교과목을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대부분의 외국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위한 과목과 세분화된 이론 과목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실기 과목과 이론과목의 균형 안에서 다양한 음악과 전공 교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세계 예술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전공에 따라 맞춤 교과목을 제공하고, 다양한 앙상블의 경험을 제공하며, 부전공의 필수화, 알렉산더 테크닉과 같은 새로운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새로운 교과목 체계의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음악과 전공 교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 심도 있는 수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보완해야 할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학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한정적인 자료를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수형태와 수업내용, 강의 계획서 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각 학교를 더욱 자세히 검토하거나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의 실제 수용 인원, 대학 진학률, 평가 기준 등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다루지 못해 후속연구에서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나라와 여러 학교의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분석되어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자료들을 통해 국내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과학교육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과부·문화체육관광부(2010).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 서울: 공동 발표
- 교육부(2009). 2009 개정교육과정의 부분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서울: 증보판
- 권현수(2014). 미국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과 교육과 정적 통합을 위한 발전방안 탐색, **특수교육**, 제13권 제2호, pp.43-73
- 김정빈(2008). 영국과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 비교 연구, **한국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pp.25-45
- 박혜진(2004). 한국과 미국의 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미영(2002). 캐나다 예술교육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 상영(2010). 한국과 중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요건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문주, 최미영(2011). 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시사,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2호, pp.145-172
- 소경희, 장주경, 이선영(2011). 호주 국가교육과정의 개발 과정 및 주요 특징, **비교교육연구** 제21권 제2호, pp.51-73
- 손유정(2008). 한국과 미국의 음악교육과정비교연구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주현(2011).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 영국과 캐나다 퀘백주 중심, **음악교육연구**, 제40권 제3호, pp.215-249
- 이미미(2014). 호주와 미국의 역사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pp.155-180
- 이용숙(1994). 교육과정 개혁 국제 비교 연구, **교육개발**, 제95권, pp.103-107
- 조성기(2013). 예술고등학교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방안 탐색, **음악교육공학** 제17호, pp.205-225
- 조성기(2012). 예술고등학교 음악전공교육의 활성화 방안, **음악교육공학**, 제14호, pp.41-60

- 최은식, 신지혜(2014).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43권 제4호, pp141-16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09 교육과정·교육평가국제동향연구 - 멕시코·미국·캐나다 -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09 교육과정·교육평가국제동향연구 - 뉴질랜드·호주 -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2013 교육과정·교육평가국제동향연구 - 독일·러시아·영국·프랑스·핀란드 -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2013 교육과정·교육평가국제동향연구 - 뉴질랜드·호주 -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혜정(2009).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방향 모색: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7권 제2호, pp.137-154
- 한혜정(2011). 학생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현방안 탐색 -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21권 2호, pp.75-99
- 한혜정, 박소영(2009).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호주 VCE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가 우리나라 대학입시 성적산출방식에 주는 시사점 탐색, **비교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83-109
- 홍원표, 이근호(2011).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연구: 캐나다퀘벡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1호, pp.67-86
-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2014). *The Australian Curriculum*
- Department for Education In England(2013).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Framework document*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Music Curriculum of the Arts High Schools in Korea,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Hyun, Kyungsil · Hong, Hye-Ye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reform of the music education and curriculum in Korean arts high schools through various analysis on the cases in Korea, the USA, Canada, the UK and Australia.

10 in all, respectively 2 arts high schools from Korea, the USA, Canada, the UK and Australia were selected, then the music curriculums of theirs were analyzed, and the followings show the conclusions.

First, while Korea's curriculum, especially focuses on the cultivation of artists, that of overseas countries tends to set up the educational purpose in multiple aspects such as holistic growth, environment emphasis, supply of the best education, equal education and expression of potential.

Second, Korean schools generally tend to force the students to major in the instruments of classical music and the orchestra, whereas the specialties of jazz, music engineering and electronic music are also being highlighted by the schools in overseas countries.

Third, the entrance process of Korean schools is basically comprised of application, practical test and the announcement. However, that of overseas schools tends to be comprised of interview, music or entrance exam, and two practical tests. Regarding the songs of the practical tests, Korean students perform a designated song or a free song they choose, foreign students, meanwhile, are asked to perform more than 2 free songs with contrasting styles. This indicates that the arts schools in overseas countries allow the right of the students to choose the songs.

Fourth, overseas schools tend to offer relatively more various subjects to their students than Korean schools do. Also, they have some subjects for more experiences and detailed music theory.

Key words: Curriculum of the Arts High Schools, Goals of Arts High Schools,

투고일: 2015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6년 1월 19일(1월 24일), 게재확정일: 1월 28일